

古文獻을 통해 본 우리나라 紫石硯의 역사에 관한 고찰

崔炳圭*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고문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 자석연의
발전사 |
| II. 고문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 최초의
자석연 | IV. 나오는 말 |

• 국문초록

자석연은 우리나라 고려, 조선시대 벼루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벼루였다. 그러나 자석연에 대한 학계의 연구 기반은 대단히 취약하다. 필자는 고문헌에 나타난 고려, 조선 시기 자석연에 대한 기록을 통해 우리나라 자석연의 정확한 역사와 종류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고문헌에 나타난 우리나라 자석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말 정몽주와 박익이 화답한 시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자석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록은 조선 초기 1454년(단종 2년)에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평창자석연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李穡이 단양을 여행하며 지은 시 “신축년 겨울 丹山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다(記辛丑年冬丹山途中)”와 김구용이 정몽주의 요청에 영월의 돌을 손수 깎아 벼루로 만들어 선물했다는 “포은대감이 벼루를 요구해 시와 함께 보내다(圃隱相公求硯, 歌以贈之.)” 등의 시를 통해 고려시대에 이미 단양, 영월, 평창 주변의 자석돌이 벼루로 사용되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고문헌의 기록을 통해 본 우리나라 자석연의 발전사는 조선 전기 강원도 평창과 평안도 선천에서부터 시작하여 조선 중기에 이르면 안동자석연과 광산자석연이 유명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조선 중후기에 이르면 관서 지역의 벼루는 선천과 광산의 자석연들이 쇠퇴하고 그 대신 위원과

* 안동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희천의 자석연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 다음 조선 후기에는 상산자석연도 더해지면서 조선시대 자석연의 발전을 이어갔다.

주제어 : 고문헌, 紫石硯, 세종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려시대, 조선시대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벼루는 남포석으로 대표되는 검은 빛을 띤 회청색연이나 오석연 외에 가장 흔한 것이 자주색을 띤 자석연이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주요 벼루산지는 대략 29군데였는데,¹⁾ 그 가운데 자석연의 산지가 11군데가 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자석연은 품질이 우수하여 중국에 수출하기도 하였다.²⁾ 다만 고려시대의 벼루는 米芾(1051~1107)의 『硯史』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려전기까지는 회청색의 벼루가 주였다가 후기로 오면서 회청색보다 비교적 석질이 좋은 자석연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자석연은 그 위상으로 보나 역사로 보나 우리나라 고려, 조선시대 벼루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벼루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자석연의 주요산지는 북한의 관서 지역과 남한의 경북, 충북, 강원으로 이어지는 자석 산지에서 많이 생산되었다. 우리나라 자석연의 역사는 유구하여 문헌상으로도 이미 조선 초기에 ‘馬肝石’³⁾이란 이름으로 자석연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은 물론 중국의 진상품으로도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⁴⁾ 이런 문헌상의 확실한 기록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 여러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가운데에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고려 자석연들이 적지 않다.⁵⁾

- 1) 이임순, 「조선시대 벼루에 나타난 문양의 조형적 분석」,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76, 7면 참조.
- 2) <조선왕조실록 단종 3년 을해(1455) 윤 6월2일>의 기록에는 “강원도 관찰사에게 중국 조정에 진헌할 자석연을 진상하게 하라”라고 하였다(한국고전번역원).
- 3) 말의 肝처럼 보라색을 띤 硯石으로, 벼루의 재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의 「孫莘老寄墨」시에 이르기를, “단계의 벼루는 말의 간을 쪼아 놓은 듯하고, 섬계의 등지는 옥판을 펴놓은 듯하네.(谿石琢馬肝, 剡藤開玉版.)”라고 하였고, 그 주석에 “단주 섬계의 돌 가운데 마치 말의 간처럼 자줏빛 나는 것이 상품이다.(端州深溪之石, 其色紫如馬肝者爲上.)”라고 하였음(한국고전번역원 마간석 주석 인용).
- 4) 『열성어제』 제5권 成宗大王 詩, “마간석이 버려진 물건 된 줄 알았는데, 서린 용이 신통력을 부려 비를 내렸네(肝石已知爲棄物, 蟠龍戲雨用神通.).” 또 15세기에 해당하는 “조선왕조실록 단종 3년 을해(1455) 윤 6월2일”의 기록에는 “강원도 관찰사에게 중국 조정에 진헌할 자석연을 진상하게 하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마간석 자석연은 안동자석연이 아니라 강원도의 평창자석연이다.
- 5) 대표적인 것으로는 고려 말의 인물 김선치(1318~1398)의 벼루(가로10.8cm×세로19cm×높이1cm)를 꼽을 수가 있다. 이 벼루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84호로 지정되어 현재 상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경북일보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참고). 그 외에도 대구대 소장의 경북 구미 출토 고려자석연(6.9×16.3×1.4), 군산대 소장의 고려장출토 고려자석연(7.3×12.8×1.2), 경기

우리나라 자석연의 역사에 관한 언급이 있는 최초의 학술논문은 2002년 이희선의 「利川 雪峰山城出土 咸通銘 벼루 研究」이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가장 오래된 자석연으로 평가되는 경기도 이천 설봉산성에서 출토된 함통명 箕形 벼루에 대해 이희선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붉은 돌로 벼루를 만들었다는 한국의 문헌자료로는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에 강원도 평창군의 南向峰에서 나는 붉은 돌로 벼루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명의 사신에게 자연을 선물로 주었다는 자료가 보이지만 紫硯의 대부분은 왜에서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평안도 渭原에서 자연이 나오기는 하지만 조선 말기에 이르러 자석을 채취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함통명 벼루와 위원석을 관계 짓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렇듯 한국에서 자석이 생산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함통명 벼루와 관계 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자석의 함통명 벼루는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⁶⁾

이희선은 우리나라 고문헌에 나타난 자석연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조선 전기 『세종실록지』 이후이므로 그 이전 신라시대의 자석연은 우리나라 산지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외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함통명 자석연의 산지를 중국으로 보았다. 그러나 손환일은 그간 한반도 여러 곳에서 자석이 생산되었기에 이 벼루를 일단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벼루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⁷⁾ 그는 또 고려시대에는 이런 통일신라의 전통을 이어받아 자석풍자연과 자석사각무문연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단언하였다.⁸⁾ 그 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의 벼루』에서 현재 우리나라 여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많은 고려 자석연 출토 벼루들을 예시하였을 뿐 아니라,⁹⁾ 그 외 고려시대의 “남포오석연”은 물론 “두만강석연”과 같은 여러 산지의 흑석연들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벼루들이 과연 고려시대의 벼루들인지에 대해서는 더욱 정확한 고증이 필요하다고 본다.¹⁰⁾ 이 벼루들이 고려시대 고분에서 확실한 연대의 물증들과

도박물관 소장의 고려자석연(8.9×15.1×1.1) 등이 있으며, 고려 말에서 조선초기로 추정되는 맹사성(1360~1438) 유물벼루인 채석포도문일월연(25×15.5×2.5)도 있다.

6) 이희선, 「利川 雪峰山城出土 咸通銘 벼루 研究」, 『문화사학』 18, 한국문화사학회, 2002, 62~63면.

7) 손환일, 『한국의 벼루』, 서화미디어, 2010, 279면.

8) 손환일, 「조선의 벼루장(硯匠), 제작양식과 관리전승」, 『무형유산』, 국립무형유산원 4, 2018, 163면.

9) 손환일, 앞의 책, 281면.

함께 출토되었다면 고려 벼루로 단정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객관적인 문헌상의 정확한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석연은 이희선의 말대로 조선 초기부터 비롯됨이 사실 이므로¹¹⁾ 고려 자석연으로 판단되는 벼루의 연대추정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 벼루의 역사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고문헌의 기록에만 의존할 순 없지만 고문헌의 기본적인 기록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 그간 우리나라 자석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는 없었으며, 자석연의 역사에 대한 관련 학계의 연구도 매우 미흡하다. 위 이희선의 논문에서도 문헌상에 나타난 우리나라 자석연의 역사는 조선초기 평창자석연부터 비롯되었다고 봄은 타당하지만 위원자석의 역사를 조선후기로 보고 있음은 한반도 자석연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을 보여준다.¹²⁾ 그리고 손환일도 앞의 저서에서 고려시대 한반도의 자석으로 단양자석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한반도 자석연에 관한 문헌상의 기록을 철저히 고찰하지 못해 생긴 소치이다.¹³⁾ 게다가 학계에서는 한반도 남쪽 지역의 많은 산지의 자석연들을 모두 ‘高山石’이란 임시방편적인 이름으로 통칭하며, ‘羊肝石’과 함께 자석연의 일종인 ‘마간석’을 안동자석연의 대명사로 사용하기도 한다. 마간석 혹은 양간석이란 말은 ‘말의 간’ 내지는 ‘양의 간’과 같은 색깔이라는 뜻으로 불그스름한 자연석에 대한 통칭으로 안동자석연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었다. 또 고산석이란 이름은 1973년에 서울 창덕궁에서 ‘名硯展’을 개최할 때 전국 각지에서 출품한 산지불명의 한반도 남쪽의 자석연들에 대해 고연연구가 김호연 등이 급조하고 벼루수집가 권도홍도 이

10) 손환일은 앞의 논문에서 고려시대에 자석풍자연과 자석사각무문연이 유행하였다고 단언하였지만 현재 전해지는 고려자석풍자연은 수량이 매우 적고 그 양식도 고려의 것이 아닌 당송대의 형제인 것으로 보아 고려자석풍자연이 고려시대에 유행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만 고려자석사각무문연은 김선치의 벼루도 그러하듯 현재 비교적 많이 발굴된 실정이라 고려 후기에 꽤 유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의 돌벼루의 유행에 대해 이찬희 등은 “고려시대 돌벼루는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돌의 시대구분이 어려워 고려시대로 추정하는 벼루는 매우 드물다.”(『보령남포벼루제작』, 민속원, 2011, 35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석연에 대한 이렇다 할 언급은 없다.

11) 오석연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은 더욱 늦어 남포오석연의 기록은 조선 중기부터이다.

12) 한반도 자석연의 역사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을 고찰하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위원자석은 사실 관서지방 자석연의 통칭으로 그 유래는 조선 전기 선천자석연으로부터 비롯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한다.

13) 이에 대해서도 다음 장에서 논의한다.

에 동의해 굳혀진 명칭이지만¹⁴⁾ 그 후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나 검토도 없이 아직까지 차용하고 있다.¹⁵⁾ 본고는 고문헌에 나타난 고려, 조선시기 자석연들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자석연의 역사와 발전과정, 나아가 자석연의 산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석연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II. 고문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 최초의 자석연

우리나라 자석연은 근대에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볼 때 고려시대에 이미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어떤 고문헌에도 고려시대 우리나라의 자석연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고, 고려시대 고문헌의 기록에도 우리나라 산지의 자석연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는 아마도 고려시대 당시 우리나라 자석연이 그리 보편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품질도 우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북송의 미불이 지은 『연사』에는 고려벼루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여기의 고려벼루는 자석연이 아니라 고려 회청색 벼루를 말한다.¹⁶⁾ 다시 말해 미불이 활동한 북송시기인 고려전기에는 우리나라 벼루의 대종이 회청색 벼루이지 자석연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미불의 말대로 회청색 고려 벼루는 얼핏 보면 석문이 중국의 흡주연처럼 보이지만 매우

14) 『古硯百選』, 월간문화재, 1973, 69~70면과 권도홍, 『벼루』, 대원사, 1989, 58~59면 참고. 또 고산석이란 이름은 1973년 창덕궁에서 벼루 전시를 할 때, 金完燮가 출품한 桃形 벼루에 “高山水石”이란 명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芮庸海, 金鍾太,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182-『벼루』, 문화재관리국, 1988, 83면 참고.

15) 소위 ‘고산석’ 가운데에는 육안으로도 석질이 구별되는 산지의 벼루돌들이 꽤 있지만 현재 모두 고산석으로 통칭하고 있는 실정이다.

16) 陳日榮, 歐陽澈, 『中華硯學通鑑』, 浙江大學出版社, 2010, 27면, “高麗硯은 벼루의 결이 단단하면서도 치밀하며, 소리가 난다. 발묵이 좋고, 돌빛은 푸른 가운데 간간히 흰색이 있으며, 金星이 돌의 가로무늬를 따라서 촘촘하게 줄을 이루고 있는데, 오래 쓰면 그 줄무늬가 없어진다(高麗硯, 理密堅, 有聲, 發墨; 色青間白, 有金星隨橫文密列, 用久乏.)”. 그러나 이 부분의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1988, 정선용 역)은 “高麗硯은 벼루의 결이 단단하면서도 치밀하며, 소리가 난다. 먹을 갈면 색깔이 푸르게 되며”(米芾, 『硯史』, 高麗硯-한치윤, 『海東繹史』, 권27, 物産志 2, 문방류)라고 했는데, 오역이다.

거칠고 메마른 볼품없는 벼루였다.¹⁷⁾그 외에도 송나라(960~1279)에 수출되는 고려의 문방사우 가운데 특히 고려의 종이나 먹은 질이 뛰어나 송의 문인들이 귀하게 여겼다고 하지만 벼루는 송에 수출되지 않았다. 고려의 대송 무역품에 벼루가 없었던 점은 당시 고려 벼루의 품질이 그리 우수하지 못했음을 말하며,¹⁸⁾ 또 고려중기 인종 1123년에 간행된 『高麗圖經』을 지은 송나라의 학자 徐兢(1091~1153)도 이 저서에서 당시 고려 벼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혹자들은 『고려도경』에 따르면 ‘硯皮廬’라 하여 이미 고려 때부터 벼루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낭설이다.¹⁹⁾ 『고려도경』에는 벼루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다.²⁰⁾ 서긍은 고려의 문방구에 대해 따로 문방구 조항을 지어 기술하지 않고 “雜俗[二] 土産” 조에서 간략하게 피력하였을 따름인데,²¹⁾ 그 가운데 유독 벼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는

17)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572-29번지 고려시대 대형 적심 건물지 배수로에서 출토된 벼루들이 지금까지 비교적 많이 발견되고 있는 전형적인 고려 전기 벼루들이다. 이런 형태의 벼루들은 대부분 회청색의 풍자형 벼루로 미불이 말한 쇠소리 나고 금성의 줄이 가끔 보이는 보잘 것 없는 작은 벼루이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한 자료인 閔修(1067~1122) 묘지명이 새겨진 회청색 벼루 역시 고려 전기의 보편적인 회청색 풍자연으로 현재 이런 형태의 고려벼루는 꽤 많이 전해진다.

18) 김삼대자 등, 『조선시대문방제구』, 국립중앙박물관, 1992, 193면, “고려시대에도 비록 돌벼루를 사용하였으나 그 품질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다. 중국 송나라와의 국교에 품질이 우수한 물품들이 예물로 사용되었는데, 선화6년(1124) 9월에 송에 간 사신 일행의 개인적인 예물에는 종이, 붓, 먹을 비롯하여 나전연갑, 나전필갑 등이 있었으나 벼루는 없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 강글은, 「고려시대 대외무역에 관한 연구」, 창원대 석사학위논문, 2009, 초록 0면, “고려의 대외 무역품은 송에는 동그릇, 낫그릇, 유황, 약제, 모피, 종지와 먹이 수출되었고, 거란에는 동그릇, 등석, 등나무그릇, 종이, 먹이 수출되었으며, 몽고에는 철, 낫쇠, 각종 동물가죽, 매, 황칠, 종이, 서적, 화문석, 그림, 그림부채 등이 수출되었다. 이처럼 공통적으로 종지와 먹이 수출되었다.”

19) 손환일, 앞의 책, 242면, “벼루의 명칭을 살펴보면 『고려도경』(1123)에 ‘硯皮廬’라 하였다.” 또 이찬희 등의 앞의 책 35면에서도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런 예는 부지기수이다.

20) 검증되지도 않은 이런 학설이 수십년간 우리나라 고미술 학계에 전전하였다는 점은 우리나라 벼루 연구의 실정을 잘 말해준다. “硯皮廬”란 말은 송나라의 손목이 고려의 朝制·풍속·口宣 등과 함께 고려어 약 360여휘를 채록하여 편찬한 견문록인 『鷄林類事』에 나오는 말이다. 이 책 전문은 실전되었지만 그 내용은 『임하필기』 19 文獻指掌編 계림류사의 方言 조와 정조 때 한치윤이 지은 『해동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벼루를 고려인들은 ‘皮廬’의 중국어 발음인 ‘피루’로 불렀음은 사실이지만 서긍이 『고려도경』에서 이를 언급한 바는 없다.

21) 『宣和奉使高麗圖經』, 권23, 雜俗[二], 土産, “松煙墨은 猛州(평안북도 孟山) 것을 귀히 여기나 색이 흐리고 아교가 적으며 모래가 많다. 黃毫筆(죽제비 털로 만든 붓)은 연약해서 쓸 수가 없다. 예부터

당시 송나라 수준으로 볼 때 고려 벼루의 질이 특별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²²⁾

현재 고문헌에 나타난 고려시대 자석연 역사에 대한 고찰은 고려 문인들이 벼루에 대해 노래한 연시나 연명을 살펴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²³⁾ 우리나라의 연시와 연명은 당시 남송(1127~1276)의 영향으로 고려중기 이규보(1168~1241)와 고려후기 이제현(1287~1367)을 필두로 12,13세기에야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14세기 고려 말기에 이르면 元天錫, 朴翊, 鄭夢周, 金九容, 李崇仁, 李詹 등 적지 않은 문인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고려중기 이인로의 『破閑集』에서는 문방구에 대해 먹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벼루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²⁴⁾ 고려말기 이곡의 문집인 『稼亭集』 속 돌의 여러 가지 쓰임과 덕성을 노래한 「石間」²⁵⁾이란 문장에서는 벼루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고려 전기에는 문인들이 벼루를 완상품이 아닌 실용품으로만 생각하였다가 점차 고려후기로 들어서면서 벼루에

이르기를 猩猩(원숭이의 일종)의 털이라고 하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 종이는 전혀 닳나무만을 써서 만들지 않고 등나무를 간간히 섞어 만들되, 다듬이질을 하여 다 매끈하며, 좋고 낮은 것의 몇 등급이 있다.”(松煙墨, 貴猛州者. 然色昏而膠少, 仍多沙石. 黃毫筆, 軟弱不可書. 舊傳爲猩猩毛, 未必然也. 紙不全用楮, 間以藤造. 搥搗皆滑膩高下數等.).

- 22) 『고려도경』 말미 張孝伯이 지은 서공의 행장(宋故尙書刑部員外郎徐公行狀) 기록을 보면 서공은 서화가로 문방사우에 대한 관심과 조예가 깊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가 당시 고려의 벼루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도 벼루의 질이 그리 좋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공의 집안에는 전부터 騎省(송초 전, 예서의 대가 서공의 조상 徐鉉)의 유물이 많았다. 세부 중 光祿大夫 侍中이 벼루 한 개를 珍寶로 여겼는데, 그 벼루 곁에 ‘鼎臣(삼공 등 지위 높은 대신을 말함)’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한번은 여러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世業(書法을 말함)’을 계승하는 자가 나오면 이것을 주어야겠다’ 하였다. 공은 그때 갓 성년이 되었으나 분별할 줄 알아서 전주에 전념하여 세부는 그 벼루를 공에게 주었다(公家, 舊多騎省遺物. 世父贈光祿大夫侍中, 寶一硯. 旁著鼎臣二字. 嘗謂群兒曰, 有能紹素業者, 當以是與之. 時公始結髮, 能知憤激, 刻意篆籀, 世父舉以授公.).”
- 23) 우리나라 연명은 연시에 비해 수량은 적은 편이지만 이 역시 고려시대부터 등장하였다. 당시 이규보, 이제현, 이첨 등을 선두로 조선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인들이 연명을 남겼다. 우리나라의 연시는 고려중기 이규보를 선두로 12, 13세기에 처음으로 지어졌다가 14세기 고려말기에 본격적으로 지어졌으니, 중국에서는 11세기에 해당하는 북송시기에 이미 연시가 대거 출현한 것에 비하면 시기적으로 다소 뒤쳐진다. 이에 대해서는 최병규, 「장르별로 살펴 본 중국문학 속의 벼루에 관한 고찰」, 『인문학연구』 48,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참고.
- 24) 李仁老著, 柳在泳역주, 『破閑集』, 一志社, 1994, 12면, “문방사보는 모두 선비의 필수품인데, 그 중에서도 먹을 만드는 일이 가장 어렵다(文房四寶, 皆儒者所須, 唯墨成之最艱.). 그리고 『파한집』을 보완해서 집필한 崔滋(1188~1260)의 『補閑集』에는 문방사보에 관한 기록이 아예 없다.
- 25) 『稼亭先生文集』, 권1, 雜著.

대한 문인들의 관심과 애착이 깊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 고려시대에는 도연과 석연이 함께 사용되었지만 갈수록 석연이 늘어나면서 석연은 고려말기부터 문인들의 문방청완의 애장품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 고문헌에 나타난 자석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이숭인(1347~1392)의 “일본의 천우 상인이 적성의 자석연을 선물했기에 시로 감사의 뜻을 표하다(日本有天祐上人饋赤城紫石硯以詩爲謝)”(『陶隱集』 권3)라는 제목의 시이다. 혹자는 우리나라 고려시대부터 자석연이 많이 유명했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이 시를 예로 들지만,²⁶⁾ 여기서의 ‘赤城’은 우리나라 단양이 아니라 일본의 名硯인 赤間關硯의 고향인 적간관(赤城이라고도 하며 지금의 下關, 즉 시모노세키 부근이다.)을 지칭한다. 고문헌에는 고려 말기부터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벼루를 선물했다는 기록이 많은데,²⁷⁾ 위 이숭인의 시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 내용들은 일본 자석연의 품질이 우수함을 칭송하거나 그것을 친구에게 선물하는 내용인데, 이는 당시 일본 자석연의 품질이 고려 자석연보다 월등했음을 말해준다.²⁸⁾

고려시대 고문헌에서 일본의 자석연이 아닌 자석연을 최초로 언급한 것은 고려 말 박익(1332~1398)이 지은 “포은의 자석연 벼루에 운을 띄우며(和圃隱紫硯韻)”라는 제목의 다음의 시이다.

26) 손환일은 우리나라 자석연의 역사가 통일신라 출토 자석풍자연과 유관하며, 고려시대부터 자석연의 산지가 개발되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필자도 수긍하는 바이다. 실제 김선치(1318~1398)가 12세 때 사용하던 1340년 14세기 전반의 꽤 정교한 조각의 고려자석연이 발견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벼루』(손환일, 앞의 책, 282면)에서는 우리나라 자석연의 역사를 논하며 일본의 ‘적성(즉 赤間關硯의 고향인 赤城)’을 가리키는 이숭인의 시 “일본의 천우 상인이 적성의 자석연을 선물했기에 시로 감사의 뜻을 표하다(日本有天祐上人饋赤城紫石硯以詩爲謝).”를 인용하는 큰 오류를 범하였다. 여기서의 적성은 우리나라 적성(즉 단양)이 아니고 일본의 적성(즉 적간관)이다.

27) 대표적인 작품으로 정몽주(1337~1392)가 지은 “일본 중 永茂의 돌벼루 선사에 사례한다(謝日東僧永茂惠石硯)”라는 제목의 시가 있다.

28) 조선후기 趙曦(1719~1777)의 『海槎日記』나 李宜顯(1669~1745)의 『庚子燕行雜識』 등의 문헌에는 석질이 미끈거리 먹이 잘 갈리지 않는 일본 적간관연을 비롯한 중국 벼루들이 우리나라 남포벼루만 못하다는 기록들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에 비해 좋은 석질의 벼루가 많이 생산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본래 다정한 물건인데
어찌 마음을 두는 곳을 택하지 않으리!
맑고 탁한 곳을 응당 알거늘
더러움에 가까이 하여 침륜하지 말지라.
本是多情物, 胡無擇處心.
應知清濁地, 莫作近汚沈.²⁹⁾

위 박익의 연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포은이 지은 원시에 대해 차운한 화답시인데, 그의 문집 『松隱集』에는 포은의 원시와 이에 먼저 차운한 목은 이색의 화답시도 모두 기록되어 있다. 우선 포은의 작품을 보자.

네게 묻나니 어느 산의 물건이기에
내 마음을 자줏빛으로 만드는가?
갈면 형태는 자연 변하겠지만
뜻을 잃게 되길 부끄러워하노라.
問爾何山物, 能爲紫我心.
磨來形自變, 愧作意沈沈.³⁰⁾

위 시는 자신이 소지한 자석연에 대한 감회로 벼루와 함께 영원히 자신의 뜻을 잃지 않으리라는 심정을 읊고 있다. 여기서의 자줏빛은 자주색 벼루와 임금을 뜻하는 자주색의 의미가 서로 어우르진 雙關語로 고려말기 임금을 따르고자 하는 정몽주의 충정이 잘 나타나있다.³¹⁾ 그런데 자석연에 대해 읊은 포은 정몽주의 이 시는 “어느 산의 물건이기에”라는 시구를 보면 일본의 자석연이 아닌 우리나라 한반도의 자석연

29) 『松隱先生文集』, 권1, 詩.

30) 상동.

31) 이에 대한 이색의 차운시 “물을 이고 문방에 누우니, 열사의 마음도 흐르도다. 천추토록 자줏빛 기운을 따랐는데, 뜻을 먼저 잃게 될까 두렵도다(戴水文房臥, 能流烈士心. 千秋由紫氣, 或恐意先沈).”는 정몽주가 행여 자신의 뜻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읊었는데, 고려 말기 복잡한 정치상황을 잘 말해준다. 여기서 “자줏빛 기운을 따름”은 바로 임금에 대한 일관된 충성심을 말한다. 마지막 박익의 연시도 그런 뜻이 계속 이어지는데, 정몽주의 마음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본연의 맑음(내지는 충성심)을 계속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벼루라는 물건을 통해 고려말기의 세 위인들이 자신들의 청렴하고 결백한 뜻과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일 가능성도 있다. 한때 정몽주는 “일본 중 永茂의 돌벼루 선사에 사례한다(謝日東僧 永茂惠石硯)”라는 제목의 칠언율시도 있듯 벼루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다. 다음에 소개하는 고려말기 金九容(1338~1384)이 지은 두 편의 硯詩 가운데 한 편도 정몽주에 관한 내용인데, 정몽주의 벼루에 대한 열정은 물론 고려시대 우리나라 자석연의 역사를 추측하게 하는 자료이다.

포은대감이 벼루를 요구해 시와 함께 보내다(圃隱相公求硯, 歌以贈之)

옛날 황려(경기도 여주) 강 위의 집에서
다행히 영월 산 속의 돌을 얻었네.
돌을 깎아 벼루를 만드니 손은 갈리어 닳아지나
그 온순하고 견고함에 깨끗한 광택도 나네.
마음 깊이 보배로 여기어 규벽 구슬보다 중하니
백금을 주어도 바꿀 수가 없다.
지난 해 봄바람에 도성에 왔다가
신세 한가한 狂客이 되었네.
호방한 친구 이가 바로 정역인데
형제보다 우애가 깊고 서로 심복하였네.
선악을 서로 고치는 것이 항시 일이었고
모자라면 서로 도우며 아낌이 없었네.
어명으로 이리 저리 바닷길을 휘저으니
몰아치는 파도는 만리에 뻗었네.
공과 이름은 날렸어도 벼슬은 짧고
위대한 업적에 문장은 우두머리라네.
정성들여 서적을 묶어 보내니
물건은 보잘것없으나 그 속마음은 정성이어라.
먹을 갈아 붓을 적서 홍금을 쏟아내니
순임금의 백성이 옛날과 다름이 없네.
나 역시 표연히 스스로 방축하여 즐기며
취해 읊조리니 천지가 돛자리만 해지네.
昔在黃驪江上宅, 幸得寧越山中石.
斲成書硯手磨琢, 溫潤堅確光潔澤.

中心寶愛重奎壁，雖以百金不願易。
 去歲春風來紫陌，身世悠悠一狂客。
 忘形故人是鄭驛，友于兄弟心悅懌。
 善惡相規以爲役，有亡相資無所惜。
 東西御命揚海舶，煙浪雲濤萬里碧。
 功名遂官咫尺，巍巍鉅作文章伯。
 緘縫慙慙寄書籍，物微聊表寸心赤。
 磨沿滋筆瀉胸臆，高舜君民如古昔。
 我亦飄然自放適，醉吟天地寬幕席。³²⁾

이 시는 김구용이 정몽주의 요구에 영월의 돌을 손수 깎아 벼루로 만들어 선물했다는 내용이다. 두 사람의 정과 의리는 물론 정몽주의 호방한 인품이 잘 드러나 있다. 영월은 단양, 평창, 정선 부근이며, 평창석 붉은 벼룻돌의 산지인 평창군 남쪽에 위치한 미탄면은 단양군의 벼루산지인 북쪽의 가곡면·영춘면과 비록 영월군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대단히 근접해있어 이 지역의 돌들이 사실상 거의 같은 계통인 것임이 짐작된다. 따라서 영춘면과 미탄면, 그리고 영월로 이어지는 이 지역은 자석 산지로 모두 평창계 벼루의 산지였다고 볼 수 있는데, 고려시대부터 이 지역의 벼루돌이 알려지기 시작했음을 추측하게 한다. 고려시대 단양 부근에 자석의 돌이 풍부하였음은 고려시대 牧隱 李穡(1328~1396)이 단양을 여행하며 지은 “신축년 겨울 丹山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다(記辛丑年冬丹山途中)” 시에서 “새벽엔 단양 길을 향해 가노라니, 자석의 병풍에 구름이 활짝 걷히었네.(曉向丹陽路，雲開紫石屏.)”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가 있다.

고려말기 김구용이 지은 두 편의 시 가운데 위의 시를 제외한 또 다른 한 편의 시 “강릉염사 숙부께 벼루와 문어를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하면서(寄江陵廉使叔謝石硯，文魚)”도 우리나라 석연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리 밖에서 향기로운 書筒이 왔는데
 푸른 바닷가에서 왔네.
 열어보기도 전에 부끄럽기만 한데

32) 『楊若齋先生學吟集』, 권上, 詩.

읽고 또 읽고 어찌 회포가 없으랴.
푸른 벼루 광채 나고
문어는 더욱 맛나네.
그날의 일 생각해보니
곳곳에서 금비녀 여인에게 돌려 싸였네.
옛날부터 풍악이 올리던 곳이
지금은 전쟁터가 되었네.
강산은 응당 한이 있지만
인물은 한가롭지 못하네.
봉화는 대궐에 전해지고
군대의 위용은 첩관을 진동시켰네.
멀리서도 알겠지 좀도둑 잡은걸
서쪽으로 웃으며 임금님 뵈겠네.
千里芳緘至, 來從碧海涯.
未開先有愧, 重讀豈無懷.
靑石光還潤, 文魚味更佳.
因思當日事, 隨處擁金釵.
自古絃歌地, 于今劍戟間.
江山應有恨, 人物不能閑.
烽火傳金闥, 軍容振鐵關.
遙知擒草竊, 西笑觀天顏.³³⁾

이 시는 숙부에 대한 김구용의 정과 지난날에 대한 감회가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김구용이 강릉의 숙부로부터 선물로 받은 벼루는 “푸른 벼루 광채 나고”라는 구절로 미루어 보아 자석연이 아니고 청석연이다.³⁴⁾ 따라서 고려시대 문헌에서는 한반도 생산의 자석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찾을 수가 없으며, 미불의 『연사』에서도 그러하듯 고려시대 전기에는 청석이 주였으며, 후기부터 자석도 점점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문헌에 나타난 자석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 전기부터 비롯된다.³⁵⁾ 단종 2년 1454년 조선

33) 『惕若齋先生學吟集』, 권下, 詩.

34) 강릉의 숙부가 보낸 이 청석연은 강릉 대도호부 소속 정선에서 나는 청석벼루돌일 가능성이 높다.

초기에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당시 한반도 팔도의 토산으로 벼루가 기록된 곳은 정선과 평창 단 2곳에 불과한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 『세종실록』 153권, 지리지 강원도 강릉 대도호부 정선군지리지

◎ 旌善郡

푸른 돌[靑石]이 郡 서쪽 20리쯤 되는 碧波山洞에서 나며, [벼루를 만든다.]

* 『세종실록』 153권, 지리지 강원도 강릉 대도호부 평창군지리지

◎ 平昌郡

붉은 돌[紫石]이 郡의 동쪽 18리 北谷里의 동구 道周 南向峯에서 난다. [벼루를 만든다.]

따라서 현재 고문헌을 통해 추적 가능한 한반도 最古의 벼루 산지는 강원도의 정선과 평창이며, 『세종실록지리지』가 조선 초기인 1454년에 제작된 것을 감안하면 고려시대 한반도에서 생산된 벼루들도 정선과 평창에서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위 고려시대 김구용의 시에서 그가 영월의 돌로 벼루를 만들어 정몽주에게 선사한 사실과 그가 강릉의 숙부에게서 청석의 벼루를 선물 받은 내용들, 그리고 『조선실록지리지』 강릉 대도호부에 기록된 정선군의 청석 벼루돌과 평창군의 붉은 석연 산지 기록들을 대조해보면 강원도 정선과 평창 부근의 벼루돌이 고려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영월, 평창, 정선은 서로 하나로 연결된 지역이며, 위 이색의 시에서 자석 병풍산이 펼쳐지는 충북 단양 특히 현재 단양 자석연의 산지인 단양군 영춘면 역시 강원도 영월과 인접하고 있다.³⁵⁾ 그런데 16세기에 나온 『신증동국여지승람』³⁷⁾을 보면 영월은 벼루돌에 대한 기록이 없고, 정선은 벽파산에서 청석이 난다고만 하였지 벼루석이란 말은 아예 없으며, 단양군은 『세종실록지리지』와 같이 벼루에 대한 언급은 없고 좋은 먹의 산지라고만 되어 있다. 반면 평창은 벼루돌

35) 물론 문헌상의 기록은 없지만 김선치의 벼루를 비롯해 실제 전세하는 고려시대 출토 자석연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고려시대 후기에는 자석연들이 꽤나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6) 단양연은 남포연과 더불어 오늘날 남한을 대표하는 벼루로 현재 단양군 영춘면 산골에서 단양벼루장인 石泉 申明植(1952~)과 그의 아들에 의해 4대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37)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제작연대는 1530(중종25)년이다.

산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46권 / 江原道 平昌郡

[토산] 玉石 군의 서쪽 赤巖里와 군의 동쪽 星磨嶺에서 난다. 紫硯石 味吞峴에서
나는데 그 품질이 가장 좋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한반도 最古의 벼룻돌은 정선과 평창에서 생산되었지만 정선의 청석은 16세기 이후부터 점점 사라진 반면 평창의 자석은 16세기까지 여전히 건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석산지였지만 16세기 이전까지도 단양은 벼루 산지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위 기록을 토대로 한반도 자석연산지는 아래 지도와 같이 단양 북쪽 지역 영춘면에서 시작하여 영월을 거쳐 평창군의 남쪽 지구인 미탄면으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정리된다. 지도상에서 보듯 평창석 붉은 벼루돌의 산지인 평창군 남쪽에 위치한 미탄면은 단양군의 벼루산지인 북쪽의 가곡면, 영춘면 등과 비록 영월군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대단히 근접해있어 이 지역의 돌들이 사실상 평창석과 거의 같은 계통인 同種同系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림 1〉 평창군 지도와 인근 자석연 산지



〈그림 2〉 단양군 지도와 자석연 산지 영춘면

이 밖에도 한반도 최초의 자석연이 강원도 평창의 자석연임을 단정하게 하는 기록으로 15세기 중반 <조선왕조실록 단종 3년 을해(1455) 윤 6월2일>의 기록도 있다.

이 기록에는 “강원도 관찰사에게 중국 조정에 진현할 자석연을 진상하게 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³⁸⁾ 여기서 말하는 자석연은 강원도 최고의 자석산지 평창석을 지칭하며, 당시 평창석의 위상을 잘 말해준다.

평창자석연의 우수한 품질을 실제 찬양한 시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成俔(1439~1504)의 「자석산 아래를 지나며(過紫石山下)」라는 귀중한 시이다. 이 시는 조선 초기 金宗直(1431~1492)이 선천의 자석연을 찬미한 시³⁹⁾와 함께 조선 초기 우리나라 자석연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진귀한 기록이다. 이 시는 당시 평창 자석의 품질이 매우 우수했음을 잘 말해주는 동시에 평창자석연이 공물로 조정에 바쳐졌음을 다시금 증명해주고 있다. 시 속에서 성현이 말하는 ‘무릉도원 榛城백리 사이’는 강원도 평창군 동쪽 17리에 있는 味呑峴을 말한다. 전술한 바대로 『신증동국여지승람 평창군』에 의하면 평창군의 미탄현은 紫硯石이 유명하다고 하였으며, 『한국학대백과사전』 國土地理考古에 의하면 평창군은 신라 때 白鳥를 거처 奈城郡의 領縣으로 되었다고 하였으니 내성은 바로 평창의 옛 이름인 셈이다.

평창자석연과 선천자석연의 연대를 따져보면 비록 선천의 자석연도 조선 전기의 학자 김종직에 의해 찬미되었지만 김종직의 시는 평창자석연의 최고 기록인 ‘조선왕조실록 단종 2년(1454)’ 이후에 지어졌기에,⁴⁰⁾ 강원도 평창의 자석연은 실록의 기록은 물론 시문의 기록으로 보더라도 고문헌에 나타난 한반도 최고의 벼루이다. 그 후 조선전기 성종 때가 되면 성종대왕 본인이 한반도의 자석연이 중국 단계연보다도 그 품질이 우수하다는 내용의 시를 지으면서 우리나라 자석연은 크게 발전하는 국면

38)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강원도 관찰사에게 馳書하여 紫石硯을 진상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중국 조정에 진현하려고 함이었다.”(한국고전번역원 인터넷자료).

39) 『東文選』, 『속동문선』, 권4, 칠언고시, 「사악이 바로 전에 의주에서 와서 선천 돌벼루를 겸선에게 주려고 하거늘 내가 앓아가지고 시로써 겸선에게 사례하다(士讜新自義州來以宣川石硯將贈兼善兼善予奪得之詩以射兼善).」

40) 단종 2년인 1454년에 김종직은 불과 23세인데, 『점필재집』 속의 그의 연시가 1454년 이전에 지어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김종직은 세조와 성종 때의 관료로 세조 5년(기묘 1459년, 28세)에 비로소 방에 급제하여 承文院權知副正字가 되었다가 1461년에 승문원박사가 되었다. 또 시 속의 인물 겸선 홍귀달(1438~1504)도 1460년에 비로소 문과에 급제하였기에 위 시는 당연히 그 이후의 작품으로 간주된다. 홍귀달의 연보인 “虛白亭集續集虛白亭年譜”를 보아도 그는 세조 8년 1462년 나이 25세에 承文博士가 되었다고 하며, 당시 金佑畢齋, 曹梅溪, 成慵齋 등과 친해 四君子로 칭해졌다고 하는데, 許士諤이 선주의 석연을 그에게 주려고 한 것을 점필재가 그것을 가로챈 것도 이때의 일이라고 하니, 이 시는 1462년 이후에 지어진 것이 확실하다.

을 맞이하였다.⁴¹⁾

Ⅲ. 고문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 자석연의 발전사

전술한 바와 같이 고문헌에 나타난 우리나라 최초의 자석연은 평창자석연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평창자석연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자석연은 단연 선천자석연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종직이 선천자석연을 노래한 시 「사악이 바로 전에 의주에서 와서 선천 돌벼루를 겸선에게 주려고 하거늘 내가 앓아 가지고 시로써 겸선에게 사례하다」는 1462년 이후에 지어졌다고 볼 수 있어 1455년에 이미 진상품으로 지정된 평창자석연에 비하면 다소 늦지만 거의 동시대인 셈이다. 여기서 김종직이 칭송한 선천자석연은 ‘쇠소리(金聲)’가 나는 점이라든지 ‘녹석보다 훨씬 나아(大勝綠石)’라는 시구로 미루어보아 이는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위원석 계통의 벼루로 생각된다. 위원석은 자석과 녹석이 모두 있을 뿐 아니라 석질이 단단해 만지면 쇠소리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안북도의 강남산맥, 적유령산맥은 동서로 펼쳐져 위원과 희천, 선천과 꾀산이 사실상 같은 산맥 지대에 있어 이곳의 벼루 돌들은 거의 동종동계로 생각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조선 전기의 문신 朴祥(1474~1530)의 「宣川紫石硯歌」(『訥齋先生集』 권2, 칠언고시)는 김종직 이후 선천자석연에 대한 고문헌상의 두 번째의 기록이자 선천자석연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위원자석연과 같은 계통임을 짐작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 시에서 박상은 선천자석연을 “압록강”의 “옥 같은 渭水(즉 渭原江)의 골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으니,⁴²⁾ 이는 바로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위원연’의 등장을 예고하는 말이다. 즉 선천

41) 조선 역대 국왕의 시문집인 『列聖御製』 성종대왕 편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는데, 당시 조정의 진상품이었던 평창자석연에 대한 찬미라고 볼 수 있다. 『열성어제』 권5, 성종대왕, “자색 벼루가 단계 벼루보다 좋은데, 옥골에 쇠소리가 나네. 돈을 줘도 살 수가 없고, 다 갖추어 형용하기 어렵네. 물 부으면 노을처럼 깨끗하고, 붓 놀리면 달빛처럼 선명하네. 보배로 역사에 빛나서, 천년토록 좋은 이름 진동하리(紫硯勝端石, 金聲玉骨生. 費錢沽不得, 求備妙難形. 吐水霞光淨, 揮毫月影明. 稱珍照簡冊, 千載動佳名)”.

42) “鴨江晝昏無日車(압록강은 낮에도 어두워 해가 사라지네)”, “琅玕渭骨補精彩(옥 같은 위수의 골격은 정채롭고)” 등의 시구가 그러하다.

자석은 위원자석의 원조였음을 뜻한다. 또 위의 시 서문에는 金成之(1492~1551, 이름은 就成)가 義州를 떠나면서 선천의 자석연을 얻었는데, 거기에는 매화와 대나무가 서로 어우러진 조각이 아름다웠다⁴³⁾고 한 것으로 보아 선천자석연은 매죽문으로 대표되는 그 유명한 ‘매죽문위원일연연’ 계통의 벼루일 가능성이 크다.

선천자석연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자석연은 안동자석연이다. 안동자석연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많은데, 그 가운데 최고의 기록은 조선 중기의 문인 宋寅(1517~1584)이 『頤庵遺稿』에서 친구에게 주자의 글 “學求聖賢, 鳶飛魚躍”과 안동자석연을 선물 받고 그 여덟 글자에 운을 맞춰 사례한 내용의 시이다.⁴⁴⁾ 그 후에도 郭壻(1568~1633)의 『丹谷集』에 “이제미의 마간석 벼루 선사를 감사하면서(謝李濟美送馬肝石硯)”라는 시가 있고, 李植(1584~1647)의 『澤堂集』에도 “安東의 朴使君에게 사례하며 大石硯歌를 지어 부치다(謝安東朴使君寄大石硯歌)”, 權克中(1585~1659)의 『靑霞集』에도 “安東紫石硯歌”가 있다. 이 밖에도 李民宥(1570~1629)의 『敬亭集』에는 “硯工 황영청이 내가 얻은 硯材가 화산에서 가장 뛰어난 양간석이라고 칭하며 몇 점을 제작하여 손수 석품을 품하니 모두가 대단히 절묘하다고 하여 이를 시부로 지어 줌(硯工黃永淸稱, 余所得硯材, 甲於花山之羊肝石, 遂製數面手品石品, 俱爲奇絕, 賦此以贈之.)”라는 시가 있고, 李安訥(1571~1637)의 『東岳集』 「端州錄」에도 당시 홍문관에 있던 벼루가 왜란 때에 소실되어 안동부사 홍리상이 안동의 큰 돌벼루로 대체했다는 내용도 있다. 따라서 안동 자석연은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 꾸준히 우리나라 자석연 벼루의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⁴⁵⁾

43)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지가 의주에 출진했다가 선천의 자죽빛 벼루를 얻었다. 벼루에는 매화와 대가 섞여 새겨졌는데 만든 기술이 아주 세련되었다. 이로 인해 성균관 학유 南楚가 시와 함께 부쳐 보냈다. 그때에는 상중이라 시를 짓지 못해 보답하는 시를 주지 못했다. 상을 치르고 조정에 돌아오니 김성지가 또 진남의 수령이 되었다.(金成之出鎮義州, 得宣川紫石硯. 梅竹交根, 制極工. 因南學諭楚, 并詩以寄. 當時在艱棘, 不可吟韻, 不果報. 卒喪還朝, 則成之又按鎮南.)”(한국 고전번역원).

44) 『頤庵先生遺稿』, 권2, “李僉正楨剛而以朱晦庵先生書學求聖賢鳶飛魚躍八大字及花山紫石硯見乃以其八字, 分韻作詩. - 澡身如雪白, 立志如石確. 斯人世無多, 不負爲己學. 任滿歸貨粟, 曾見此倖不. 君清畏人知, 矧肯從彼求. 矮屋陋不堪, 公退猶誦詠. 誰知方寸地, 對越前後聖. 晦庵百世師, 筆迹存儼然. 伊誰壽諸梓, 惓惓篤懷賢. 堂堂八大字, 奎壁光屬聯. 丁寧眎學者, 妙趣求魚鳶. 熒熒紫玉硯, 几案生光輝. 只嫌下筆拙, 欠却雲煙飛. 珍重荷相贈, 匪報以瓊琚. 還恐懷璧災, 況兼熊掌魚. 一室滿圖書, 此中有餘樂. 但爲薄技使, 何殊冶金躍.”

45) 최병규, 「안동의 벼루」, 『영남학』,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9, 440~444면 참고.

안동자석연 다음으로 고문헌에 등장하는 자석연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벼루로 간주되는 위원자석연이다. 전술한 바대로 위원자석연의 전신은 조선전기부터 유명하였던 선천자석연이다. 그러나 고문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위원자석연’이란 명칭은 조선 중후기 申翊聖(1588~1644)의 『樂全堂集』 속의 기록이다. 여기서 신익성은 임금의 사위인 부마로서 당시 유명한 공물 벼루들을 눈여겨보았는데, 그 가운데 명품으로 安東, 高原, 熙川, 渭原, 豐川, 藍浦 산지의 벼루들을 꼽았다.⁴⁶⁾ 여기에는 선천의 자석연이 없고 그 자리에 위원석이 끼어들었다. 이는 위원연이 당시 관서 지역의 최고 품질의 벼루로 부상하였음을 말해준다. 그 후에도 위원연에 대한 찬사는 계속 이어져 李麟祥(1710~1760)의 「윤자목의 위원자반석 연명(尹子穆渭原紫斑石硯銘)」, 李仁行(1758~1833)의 『新野集』을 비롯해 조선시대 대표적인 벼루연구가 柳得恭(1748~1807), 成海應(1760~1839) 등도 위원연의 품질을 인정하였으며,⁴⁷⁾ 그 외, 조선 후기 金邁淳(1776~1840)의 「渭硯銘」, 鄭元容(1783~1873)의 「渭江硯銘」에서도 위원연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나면서 위원연은 선천연을 대신해 관서 지방 벼루의 총아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

위원자석연 다음의 역사를 지닌 벼루는 충북 진천의 자석연인데, 조선 중후기 南九萬(1629~1711)이 충북 두타산의 진천 자석벼루를 칭송한 시 「진천 두타산에서 나는 붉은 벼루가 작으면서도 매우 아름다웠다(鎭川頭陀山紫石硯小而甚佳)」(『藥泉集』 第一)는 고문헌에 나타난 常山(진천의 고명) 자석연 최고의 기록이다. 여기서 남구만은 상산 자석연을 임금님이 인정한 벼루로 조선 후기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명성을 차지하였다고 칭찬하였다. 상산자석연은 그 후에도 조선 후기의 문신 申緯(1769~1845)의 『警修堂全藁』, 李裕元(1814~1888)의 『嘉梧藁略』과 『林下筆記』 제34권 「華

46) 『樂全堂集』 권9, 尺牘 「寄晉龜兩甥」, “舅自幼少, 粗解操筆. 且早通禁籍, 叨恩數, 凡有四方貢獻, 或蒙輟賜, 遍得我國產硯衆品, 如安東, 高原, 熙川, 渭原, 豐川, 藍浦者, 皆各有一長. 安東馬肝雖良, 難得眞. 水沈得之, 亦多玷缺. 青色頗佳. 高原數品, 發墨華, 而非九龍產, 水易涸. 豐川剛而滑, 磨研不易, 其紫色者稀貴. 熙, 渭大略相似, 撥墨較快, 使毫易秃. 唯藍產諸品皆佳, 要非深入地底者, 病水乾. 傾年堂兄爲縣, 送大小四五, 而花草一片最美, 與玄洲分一半, 作池受之. 不減銅雀瓦. 蓋其撥墨如九龍, 而沈細滑不滯, 無乾涸之疵. 失於丁卯之變, 每握管, 輒思之不能忘, 微物之爲累也. 汝家藍莊, 距硯地幾何遠耶? 爲老夫得地底丈許者一片見貽否? 吾已病矣, 朝夕不相期, 又有外虞, 而尚求閑物, 必以爲迂. 幸不死於病與寇, 則生前要用也. 爲爾縷縷, 且論硯品, 欲使甥輩知之.”

47) 『研經齋全集』 권12, 文, “渭原石, 青色似歙石. 紅者似端石, 然紋理少麤. 佳品常在積水中, 用人力甚衆乃可得.”

東玉糝編』중 “동방의 옛 기물(東方古器)”이란 문장에도 보인다. 특히 신위의 『경수당전고』에는 자신의 서재에 있는 귀품들을 노래하면서 그 가운데 康熙 御銘의 松花石硯, 百濟瓦硯, 赤間關御硯 등의 벼루들과 함께 ‘雒川石硯’을 언급하였는데, 여기의 작천석연에 대한 기술⁴⁸⁾에서 남구만의 두타산 자석연시를 인용하였으니 작천석연은 바로 두타산의 상산 자석연의 별칭임을 알 수가 있다. 또 『경수당전고』에는 신위가 음성으로 부임한 성해응에게 작천석硯材를 요구한 일과 성해응이 그에 응답한 내용의 시들⁴⁹⁾로 보아 작천은 음성의 고명으로⁵⁰⁾ 작천석연은 바로 진천, 음성에서 나는 연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우리나라 벼루 산지에 대한 대표적인 기록인 李圭景(1788~?)의 『五洲衍文長箋散稿』, 유득공의 『冷齋集』, 徐有渠(1764~1845)의 『林園經濟志(별칭 林園十六志)』, 성해응의 『研經齋全集』 등에서는 그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상산자석연은 그 후 사라졌거나 아니면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귀한 자석연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자석연은 郭山, 희천, 高靈, 彦陽 등과 같은 순수한 자석연 산지 외에도 鍾城과 같은 오석과 자석이 동시에 생산되는 곳도 있었음⁵¹⁾을 『京都雜志』, 『임원경제지』, 『閨閣叢書』,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경재전집』 등을 통해 확인되며, 그 가운데 곽산자석연에 대한 기록은 매우 일러 조선전기 문신 李荇(1478~1534), 尹殷輔(1468~1544) 등이 『동국여지승람』을 증수하여 1530년에 편찬한 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보인다.⁵²⁾ 그리고 다음으로 오래된 것은 희천자석연에 대한 기록으로 최고 기록은 전술한 조선 중후기 신익성의 『낙전당집』 속의 기록이다. 여기서 그는 “희천과 위원의 것은 대략 비슷하여 潑墨이 비교적 경쾌하나 붓이 문드

48) 『警修堂全藁』冊7, 齋中詠物 30首, “「雒川石硯」-物亦有遭遇, 紫雲驚內府, 嗟哉雒川石, 以余爲初祖, 藥泉南相公九萬鎮川頭陀山紫石硯詩曰, 聞昔韓生得鎮石, 一卷携入紫宸中. 重瞳鑑別親題品, 聲價居然冠海東. 韓生蓋指石峯也.”

49) 『警修堂全藁』冊3, 「次韻成陰城 海應 乞雒川石硯材詩, 戲成贈答.」, “「贈研」郡產天然研, 深慙養不材. 署衙從謹拙, 揮翰乏玫瑰. 墨瀋時堪翫, 羅文手自裁. 乃今非汝負, 屬草賦歸來.”, “「研答」天生石而已, 人用研爲名. 媚嫵圖書內, 發皇文字精. 沉泥甘自棄, 英眄一何榮. 與子長親近, 磨穿覺命輕.”

50) 조선시대의 雒川은 충북 음성 외에도 관서의 해주와 호남 지역에서도 보인다.

51) 趙根(1631~1690)의 『損庵集』 서문에는 柳希春(1513~1577)이 이 고을에 작천되었을 때 그곳 태수가 종성자석연 벼루를 주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조선중기에 이미 종성연이 생산되었음을 말해준다.

52) 『신증동국여지승람』 제53권/평안도/郭山郡 [토산] 紫硯石 宣沙浦에서 난다.” 참고.

러지기 쉽다⁵³⁾”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 제53권 평안도 宣川郡 조항에는 “紫硯石이 선천군의 동쪽에 있는 多米里에서 나온다”고 하였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제53권 평안도 선천군에 대해 『대동지지』에는 속읍으로 선천, 鐵山, 龍川, 碓山, 定州, 嘉山, 博川, 寧邊, 泰川, 龜城 등이 있다고 하였으니, 碓산의 벼루는 선천의 벼루와 동종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碓山자석연에 대한 당시 문인들의 기록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고 모두가 선천자석연으로 통칭하였던 것이다. 이는 위원자석연의 아류인 희천의 자석연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碓山자석연은 선천자석연과, 그리고 위원자석연은 희천자석연과 함께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석연의 발전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조선시대 그 어떤 고문헌에도 오늘날 우리나라 자석연을 대표하는 단양연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는 것과 현재 우리가 말하는 위원연은 관서지방 자석연의 통칭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단양연은 단양자석벼루 장인 신명식의 증언⁵⁴⁾과 같이 일제강점기 전후에 생긴 이름으로 그 이전에는 ‘단양연’이란 독립적인 이름이 없고 평창자석연에 속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선천을 비롯해 碓山, 희천 등지의 유서 깊은 관서의 자석연 산지들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나중에 출발한 위원자석연이 관서 자석연의 대표로 급부상한 것과도 같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대로 평창자석연 광맥인 평창군 남쪽의 미탄면은 오늘날 단양군의 벼루산지인 북부 지역의 가곡면, 영춘면 등과 매우 인접하여 이들 산지의 벼루돌들이 사실상 같은 광맥의 평창계 자석연의 산지이며, 관서지역 자석산지인 선천석, 碓山석, 위원석, 희천석도 사실 동종동계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고문헌의 기록을 통해 본 우리나라 자석연의 발전사는 조선전기 강원도 평창과 평안도 선천에서부터 시작하여 조선 중기에 이르면 안동의 자석연과 碓산의 자석연이 이에 합세하여 유명해지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조선중기인 1530년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록된 조선시대 자석연 산지는 평창, 선천, 碓山, 안동

53) 『樂全堂集』, 권9, 尺牘 「寄晉龜兩甥」, “熙、渭大略相似, 撥墨較快, 使毫易禿.”

54) 단양자석연에 대한 단양벼루장인 신명식의 증언에 의하면 단양자석연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광맥을 발견하여 신명식의 부친 등이 벼루 만드는 작업에 동원되었다고 하며, 그 후 자신과 형제들이 현지 노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가곡면 향산리 주변을 탐색한 끝에 일제 강점기 때의 자석 광맥을 찾아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석 광업권 등록까지 마쳤다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인터넷자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참고. 따라서 단양자석연은 평창자석연 碓山의 지맥에서 채굴된 벼루돌로 볼 수 있다.

네 군데이지만 그 가운데 평창은 일찍이 조선 초기에 지어진 『세종지리지』에도 등록되었기에 그 역사가 가장 깊다. 그리고 선천은 이미 고문헌 시를 통해 평창과 근소한 차이로 그 연대가 높음이 증명되었다. 궩산과 안동 자석연의 역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록된 까닭으로 153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외의 고문헌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 조선 중기로 판단된다. 그 후 조선시대 중후기에 이르면 관서 지역의 벼루는 선천과 궩산의 자석연들이 쇠퇴하고 그 대신 위원과 희천의 자석연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그 후 조선 후기에 이르면 상산의 자석연도 더해지면서 조선시대 자석연의 발전을 이어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석연은 고문헌에 등록되지 않은 단양의 자석연인데, 단양은 전술한 바대로 영월을 거쳐 평창과 이어지는 동중동계의 자석연 산지이므로 단양 자석연은 조선시대 평창자석연을 계승한 것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⁵⁵⁾

IV. 나오는 말

우리나라 고문헌에는 벼루에 대한 기록이 매우 드물다. 고려, 조선시대에도 문인들이 벼루를 찬미한 연명이나 연시와 같은 장르의 문학작품들은 많았지만 우리나라 벼루의 역사와 종류, 그리고 벼루의 품평 등에 관한 전문적인 논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벼루에 대한 기록은 기껏해야 조선후기의 유득공, 서유구, 성해응, 이규경 등과 같은 몇몇 실학자들이 남긴 짧은 필기가 전부이며, 그것도 서로 중언부언하여 기록하고 있어 실재내용은 매우 빈약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문헌은 매우 제한적이며, 그 가운데 벼루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찾을 수 있는 모든 문헌의 기록을 통해 고려, 조선시대 자석연의 역사를 추적하고자 노력하였다.

고문헌에 나타난 우리나라 최초의 자석연은 1454년 조선 초기에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실린 평창자석연이다. 그러나 고문헌에 나타난 우리나라 자석연에 대한

55) 충북의 단양자석연이 평창자석연을 이어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것처럼 충북의 진천의 상산자석연도 현재 조선시대의 유풍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몇몇 뜻있는 장인들에 의해 계승되어지고 있다.

최초의 기록은 고려말 정몽주와 박익이 화답한 시이다. 자석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문헌상의 기록은 조선 초기 1454년(단종 2년)에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평창자석연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李穡이 단양을 여행하며 지은 시 “신축년 겨울 丹山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다(記辛丑年冬丹山途中)”와 김구용이 정몽주의 요청에 영월의 돌을 손수 깎아 벼루로 만들어 선물했다는 “포은대감이 벼루를 요구해 시와 함께 보내다(圃隱相公求硯, 歌以贈之.)” 등의 시를 통해 고려시대에 이미 단양, 영월, 평창 주변의 자석돌이 벼루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문헌의 기록을 통해 본 우리나라 자석연의 발전사는 조선 전기 평창자석연과 선천자석연에서 시작하여 조선 중기에 이르면 안동자석연과 곽산자석연도 유명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조선 중후기에 이르면 관서 지역의 벼루는 선천과 곽산의 자석연들이 쇠퇴하고 그 대신 위원과 희천의 자석연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산자석연이 그 뒤를 이으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자석연의 발전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석연의 역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조선시대에는 오늘날 우리나라 자석연을 대표하는 단양자석연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였다는 점과 과거 남포연과 함께 우리나라 벼루를 대표했던 위원연은 사실상 관서지역 여러 자석연들의 통칭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단양연은 일제강점기 전후에 생겨난 이름으로 그 이전에는 평창계 자석연에 속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선천을 비롯해 곽산, 희천 등지의 유서 깊은 관서의 자석연 산지들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나중에 출발한 위원자석연이 관서 자석연의 대표로 급부상한 점과도 일치한다.

고문헌을 통한 자석연의 역사에 대한 고찰은, 유사한 빛깔의 돌로 제작되어 연대는 물론 산지 측정이 어려운 우리나라 자석연들의 역사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문헌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벼루 연구의 또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郭瑄, 『丹谷集』, 한국고전번역원
柳得恭, 『京都雜志』, 한국고전번역원
權克中, 『靑霞集』, 한국고전번역원
金九容, 『惕若齋先生學吟集』, 한국고전번역원
金宗直, 『佔畢齋集』, 한국고전번역원
南九萬, 『藥泉集』, 한국고전번역원
朴翊, 『松隱先生文集』, 한국고전번역원
朴祥, 『訥齋先生集』, 한국고전번역원
卞季良, 『世宗地理志』, 한국고전번역원
徐居正, 『東文選』, 한국고전번역원
徐有渠, 『林園經濟志』, 한국고전번역원
成宗大王, 『列聖御製』, 한국고전번역원
成海應, 『研經齋全集』, 한국고전번역원
宋寅, 『頤菴先生遺稿』, 한국고전번역원
申翊聖, 『樂全堂集』, 한국고전번역원
申緯, 『警修堂全藁』, 한국고전번역원
柳得恭, 『泠齋集』, 한국고전번역원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한국고전번역원
李崇仁, 『陶隱集』, 한국고전번역원
李穀, 『稼亭先生文集』, 한국고전번역원
李民歲, 『敬亭集』, 한국고전번역원
李植, 『澤堂集』, 한국고전번역원
李裕元, 『林下筆記』, 한국고전번역원
_____, 『嘉梧藁略』, 한국고전번역원
李安訥, 『東岳先生集』, 한국고전번역원
李仁行, 『新野先生文集』, 한국고전번역원
李荇, 尹殷輔 等, 『新增東國輿地勝覽』, 한국고전번역원
鄭夢周, 『圃隱集』, 한국고전번역원
趙根, 『損庵集』, 한국고전번역원
韓致瀛, 『海東釋史』, 한국고전번역원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한국고전번역원
趙曦, 『海槎日記』, 한국고전번역원

李宜顯, 『庚子燕行雜識』, 한국고전번역원

米芾, 『硯史』, 한국고전번역원

憑虛閣 李氏, 『閨閣叢書』, 조선총독부 도서관, 소화 7년

李仁老 著, 柳在泳 역주, 『破閑集』, 一志社, 1994

崔滋 著, 박성규 역, 『補閑集』, 계명대학교출판부, 1984

권도홍, 『벼루』, 대원사, 1989

김삼대자 등, 『조선시대문방제구』, 국립중앙박물관, 1992

손환일, 『한국의 벼루』, 서화미디어, 2010

예용해, 김종태,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82호-『벼루』, 문화재관리국, 1988

월간문화재, 『古硯百選』, 1973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하)』, 동국문화사, 1959

이찬희, 김지영, 정동찬, 『보령남포벼루제작』, 민속원, 2011

陳日榮, 歐清煜, 『中華硯學通鑑』, 浙江大學出版社, 2010

강글온, 「고려시대 대외무역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초록, 2009

이임순, 「조선시대 벼루에 나타난 문양의 조형적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이희선, 「利川 雪峰山城出土 咸通銘 벼루 研究」, 『문화사학』 18, 한국문화사학회, 2002

손환일, 「조선의 벼루장(硯匠), 제작양식과 관리전승」, 『무형유산』 4, 국립무형유산원, 2018

최병규, 「안동의 벼루」, 『영남학』,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9

_____, 「장르별로 살펴 본 중국문학 속의 벼루에 관한 고찰」, 『인문학연구』 48,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인터넷자료

경북일보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s Purple Ink Stone through the Ancient Literature

Choi, Byeong-gyu

In Korea, the study of the ink stone was mainly conducted as a part of archaeological research, not from the interest and interest of ink stone itself, although there are some papers that studied the origin of the ancient ink stone excavated. This paper reveals that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purple ink stone in Korea, especially in literary works, the ink stone, which is considered only as a craft art or folklore material, is not just a relic, but our precious traditional culture, in which human and spiritual values are hidden. As a result, I intend to expand the field of view and research for various methods of researching ink stone in Korea.

In addition, detailed information on the history and producing areas of purple ink stone in Korea, which are directly mentioned in the ancient literature, will also help to more accurately appreciate the production area and era of real purple ink stone that are difficult to measure.

We need to move beyond the narrow view of seeing the ink stone as just a hard and strict archaeological object, and approach it with a broader and more pluralistic view of the ink stone's humanistic and traditional cultural values and our ancient life culture or antiques. This paper intends to broaden the scope of research on Korea's purple ink stone by providing historical data on the prod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purple ink stone through data reorganization and analysis of the purple ink stone,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Korea's ink stone.

Key Words : ancient literature, purple ink stone, SinjeungdonggukyeojiSeungram, Sejong Geography, Joseon Dynasty, Goryeo Dynasty